



한덕수 총리,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현장 방문 “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” 지시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4일(월)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받았다.
-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“행안부,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·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,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”고 지시했다.
-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, “행정안전부, 외교부,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,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또한, “외교부 장관은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시스템을 즉시 구축·운영하라”고 지시했다.
- 특히, “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,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”고 지시했다.
-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“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, 관계부처는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”고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조정실	책임자	과 장 신강민 (044-200-2346)
<총괄>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최송아 (044-200-2348)